

TV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EBS

Table with 3 columns listing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플러스1

Table with 2 columns listing EBS Plus 1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플러스2

Table with 2 columns listing EBS Plus 2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9일(음 11월 7일 己酉)

Table with 2 column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 text.

“욕하지 말고 너그럽게 봐주세요”

SBS 세 번 결혼하는 여자 ‘은수’ 역 이지아



“딸아이를 아빠에게 안 보내는 부분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드라마 흐름을 지켜보면 다 이해가 가거든요. 길게 보시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행하다 보니 심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몸이 좀 힘들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부분도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초반에 잠깐만 그랬는데, 오랜만에 너무 예민하게 봐주시니까 그렇게 보인 것 아닌가 싶다. 배우로서 속상하고 드라마와 관련된 다른 분들에게도 죄송하다.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드라마는 히트작 제조기이자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로 명성이 높은 김수현 작가의 신작으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지아는 김수현 작가 특유의 대사 톤에 관해 “처음 대본 리딩할 때 (작가에게) 정말 많이 혼났다. 말투를 고치는 게 쉽지 않았다. 지금은 많이 편해진 것 같고 평소에 얘기할 때에도 (김수현) 선생님 특유의 어체가 나온다. 선생님의 분명하고 딱 떨어지는 어체가 처음엔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 매력적이었다”고 했다.

극중에서 그는 남편 준구(하석진 분)에게 내연녀가 있음을 곧 알게 될 예정이다.

실제로 남편의 불륜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나와 은수는 확실히 다른 대응을 한다. 대본을 보고 사실 놀랐는데, 은수란 캐릭터는 굉장히 당찬 것 같다. 내가 현실에서 못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로) 잘 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은수의 언니 ‘현수’ 역을 맡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엄지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함께 했다.

그는 김수현 작가의 전작 ‘무자식이 상팔자’에 이어 두 번째로 김 작가와 함께 하게 된 배경으로 “다른 작품들은 대본과 트리트먼트가 정확히 있고 그걸 본 뒤 나와 어울리는지 검토하는 게 보통인데, 김수현 작가는 ‘뭐 있는데 할래요?’ 그 정도라서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영화 ‘소원’을 끝내고 너무 어려운 작품



“예뻐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은수 언니 ‘현수’ 역 엄지원

‘세시봉’ 주역들 다시 뭉친다

‘메리크리스마스 세시봉’ 23~24일 방영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에 ‘세시봉’ 열풍을 몰고온 조영남,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이 다시 뭉친다.

MBC는 오는 17일 오후 8시 일산 MBC 드림센터에서 ‘메리크리스마스 세시봉’ 공연의 공개 녹화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시절의 명곡은 물론 크리스마스 시즌에 걸맞게 다양한 캐럴 음악을 선사한다. 세시봉 활동 시절의 뒷얘기도 들려준다.

이런 무대에서는 최근 솔로 앨범을 발매하며 디바로서의 면모를 과시한 씨스타의 효린, 에프엑스의 투나, 걸그룹 레인보우 등 아이돌 스타들이 이들과 함께 특별 무대를

선보인다.

제작진은 “세시봉 음악을 사랑해준 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젊은 세대는 세시봉의 음악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이날 공연은 오는 23일, 24일 오후 11시 15분 이틀간 방송된다.

TV 하이라이트

위암 이겨낸 ‘김정수’ 건강 비법



1990년대, ‘당신’이란 곡으로 수많은 여자를 울렸던

삶 속에 스며있는 팔에 대한 향수



70년 된 노부부의 따뜻한 일상



그때 그 사람(채널A·오후 8시30분)=발라드 가세를 보이던 91년 가요계에서 트롯풍의 성인 가요 ‘당신’으로 단숨에 대중을 사로잡은 가수 김정수. 23년의 긴 무명 시절을 딛고, 가수왕 자리까지 올랐지만 ‘당신’의 열기가 식고 난 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3년 전, 갑작스러운 위암 3기 판정으로 위의 80%를 절제하고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겼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재발 우려로 삼일암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 체질 개선을 위해 한 끼 식사는 물론 물 하나까지 꼼꼼히 신경 쓴다는 그다. 강원도 현까지 가서 온갖 약재를 구해 손수 끓여 마시는 등 위암 극복을 위한 그의 철저한 건강관리 비법을 들어본다. 또 국민가수 자리에 서게 해준 히트곡 ‘당신’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어본다.

요리비전(EBS·오후 8시20분)=팔로 ‘예’를 올리고 ‘복’을 나눈다는 담양 향교의 동지제사. 예부터 우리 민족은 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동지를 ‘예기설’로 여기며 정성스레 쓴 팔죽으로 동지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제사가 끝나면 대문과 벽에 팔죽을 뿌려 잡귀를 쫓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동지죽을 먹으며 복을 나눴다. 선비들의 절개가 살아 숨 쉬는 전남 담양의 향교를 찾아 지금은 잊혀져 가는 향교의 동지제사를 함께 하고 팔에 대한 추억을 들어본다.

인간극장(KBS1·오전 7시50분)=경북 예천, 막바지 추수가 한창인 작은 마을에는 함께 한 지 70년인데도 여전히 오순도순 정다운 권병관(91)·윤사연(85)씨 내외가 산다.

91세의 나이에도 정정한 병관 할아버지는 100세까지 농사지어 남과 나누는 것이 소원인 천성 농사꾼. 할아버지의 단팥인 85세의 사연 할머니는 새색시 같은 수줍음을 여전히 간직한 백발의 소녀다.

팔은 종가에서도 사랑받던 곡식이었다. 특별한 날에야 맛볼 수 있었던 귀한 간식 ‘양갱’과 늙은 호박의 속살을 갈아 쌀가루, 팥을 넣어 쪄 ‘호박시루떡’, 수수 반죽을 지져 팔안감으로 속을 넣은 ‘팔부꾸미’ 등도 만나본다.

이날 공연은 오는 23일, 24일 오후 11시 15분 이틀간 방송된다.